

# 1920년대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과 문학시장의 구조적 변동

柳石桓\*

- |                           |                        |
|---------------------------|------------------------|
| I. 논의의 초점                 | IV. 개벽사의 유산과 문학시장의 계층화 |
| II.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과 그 특징     | V. 맺는말                 |
| III. 문학시장의 교환기구로서 개벽사의 역할 |                        |

## • 국문초록

이 글은 개벽사의 역사적·문학사적 의미를 문학시장이라는 사회적 공간과 연관 지어 검토한 결과이다. 개벽사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 전 계층을 포괄하는 데 성공했던 잡지사였다. 개벽사는 연령·성별·학력·직업 등을 기준 삼아 사회 전 계층을 분할한 후 그에 적합한 잡지들을 고안했다. 『개벽』과 『부인』·『신여성』, 『어린이』, 『별건곤』, 『학생』 등은 그 결과물이었다. 개벽사의 그와 같은 미디어 전략에 의해 지식과 문학이 계층별로 구분될 수 있고, 혹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었다. 개벽사는 근대문학의 계층별 분할의 첫 모델을 보여준 잡지사였다. 이 글의 학술사적 기여도는 특정한 작가나 작품, 혹은 문학의 유파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문학사 이해방식과는 관점과 방법을 달리하는 새로운 이해방식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개벽사, 문학시장, 『개벽』, 『신여성』, 『어린이』, 『학생』, 『별건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연구교수

## I. 논의의 초점

이 글의 목표는 근대문학사에서 개벽사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학시장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데 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잡지는 신문, 책과 더불어 근대문학의 주요한 물질적 기반이었다. 특히 문단에서 입지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문학 유파를 형성·공표할 때면 어김없이 잡지가 선택되었다. 하지만 잡지는 단순히 작가의 이합집산이나 작품 취사선택의 거점으로만 기능하지 않았다. 『개벽』 연구에 결정적인 공헌자 중 한 명인 최수일의 지적대로 매체는 단순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 따위가 아니기 때문이다.<sup>1)</sup> 2000년을 전후하여 유행했던 인쇄매체 연구가 말해주듯이 매체는 언제나 나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지향점을 추구하면서 문학(화)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동인이다. 그간 연구자들은 인쇄매체의 역사적 양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근대문학, 지식문화, 국민국가, 검열, 대중, 문화정치, 젠더 등을 키워드 삼아 다양한 문제들을 고안했다. 매체의 주체성·자율성에 주목하며 사회변동의 주요인으로서 인쇄매체가 발휘하는 영향력의 방향, 크기, 강도, 효과 등을 역사적으로 검토한 것이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인쇄매체 연구였다.

그렇다면 인쇄매체의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배태되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면, 자연스럽게 인쇄매체의 기획자·편집자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사상으로서의 편집자”라는 개념을 제안했던 후카이 토모아키[深井智朗]가 정확히 지적한 대로 “그들은 출판이라고 하는 도구(tool)를 이용해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나 지배적 문화에 도전한 사람들”로서 “사상가에게 (수동적으로) 협력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언어화(言語化)해줄 수 있는 사상가(집필자)를 찾아내어 그들을 통해 발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sup>2)</sup> 이 까닭에 예컨대, 1924년을 전후한 『개벽』의 좌경화에 대해 “『개벽』의 일관된 정치 지향과 현실 참여의 태도에 주목”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sup>3)</sup>

1)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25면.

2) 深井智朗, 홍이표 역, 『사상으로서의 편집자』, 도서출판 한울, 2015, 46면.

3)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7, 410면.

이 글이 『개벽』이 아니라 개벽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과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는 이 글의 초점이 인쇄매체의 내부가 아니라 그 외부에 있다는 것이다. 즉 편집의 효과는 단순히 특정한 내용의 선택·배제·배치 그 자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인쇄매체의 영향력도 지식과 정보, 사상과 문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유행시키는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인쇄매체는 그 이름대로 텍스트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사회에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지식 네트워크의 실재성은 인쇄매체의 정기적인 발행에 의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이 공고해질수록 뚜렷해진다. 이때 그 과정에서 인쇄매체에 의해 산출된 지식이 일상화·내면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 지식에 기초한 특정한 상상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자명해지곤 한다.<sup>4)</sup> 이를테면, 문학의 하위 범주로서 여성문학이나 아동문학과 같은 범주의 분화가 발생하고, 그렇게 계층화된 문학시장의 구조가 객관적인 실재로서 사회에 자리잡듯이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인쇄매체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의 창출, 변형, 지속, 소멸을 주도하는 장치인 셈이다.<sup>5)</sup> 영토와 같은 공간성을 전제하는 통치성과 인쇄매체를 결합시킨 이른바 ‘신문 정부’라는 상상력은 사회적 공간을 주조하는 인쇄매체의 구성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sup>6)</sup>

요컨대, 이 글에서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인쇄매체의 구성력에 초점을 맞춰 인쇄매체의 편집 주체로서 개벽사의 전략이 문학시장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sup>7)</sup> 말하자면,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근대잡지의 역사에서 개벽사는 어떠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만들어냈는가, 곧 개벽사 이전과 이후의 같고 다른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異同性의 형성 과정에서 개벽사는 문학을 어떻게 취급했고 그 취급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은

4) 이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로는 Peter L. Berger · Thomas Luckmann, 하홍규 역, 『실재의 사회적 구성: 지식사회학 논고』, 문학과지성사, 2013 참조.

5) 사회적 공간의 생성에 관한 아이디어는 Henri Lefebvr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에코리브르, 2011)을 읽으면서 얻었다.

6) 1920년대 ‘신문 정부’ 담론에 대해서는 박현호,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검열연구회 편,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214~232면 참조.

7) 식민지시기의 문학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참조.

근대잡지의 역사에 무엇을 각인시켰고, 그것이 문학시장의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물음들이 이 글의 관심사이고, 그에 대해 일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구체적인 목표다.

잘 알려진 대로 천도교 청년회에서 설립한 개벽사는 1920년 6월에 창간한 『개벽』을 포함하여 개벽사의 생명력이 실질적으로 다했던 1935년까지 9종의 잡지를 발행한 잡지사였다.<sup>8)</sup> 그 9종의 잡지는 『개벽』(1920.6~1926.8, 1934.11~1935.3, 1946.1~1949.3), 『부인』(1922.6~1923.8), 『신여성』(1923.9~1926.10, 1931.1~1934.4), 『어린이』(1923.3~1935.3, 1948.5~1949.12), 『별건곤』(1926.11~1934.8), 『학생』(1929.3~1930.11), 『혜성』(1931.3~1932.4), 『제일선』(1932.5~1933.3), 『신경제』(1932.6~?)였다. 이 9종이라는 잡지 종수는 식민지시기의 그 어떤 잡지사도 시도하지 못한 규모였다. 당대에 개벽사는 흔히 ‘잡지 왕국’이라고 불렸는데, 이 명성은 단지 『개벽』만으로 얻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신여성』, 『어린이』처럼 해당 영역에서 『개벽』과 같은 위상을 가졌던 잡지들이 『개벽』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결과였다. 그 결과 식민지 조선인의 잡지사들 중 적어도 1926년 8월에 『개벽』이 강제 폐간되기 전까지 개벽사를 넘볼 수 있는 잡지사는 없었다. 당시의 잡지시장은 개벽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개벽사는 일제의 검열에 따른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인쇄매체의 합법적 가능성의 극한이 어디인지를 보여준 잡지사이기도 했다. 제국과 식민지의 역학 속에서 政論이 억압을 받을수록 인쇄매체에서 문학의 비중은 높아지곤 했는데, 개벽사의 잡지들은 그 현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개벽사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문학시장에 미친 개벽사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졌다. 그 결과 개벽사는 자신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든 간에 문학시장의 확장과 변형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

8) 개벽사는 김기전을 주간으로 하여 1945년 10월에 재건되었다(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편, 『天道敎青年會八十年史』, 글나무, 2000, 661면). 그러나 옛 영광을 재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간판잡지인 『개벽』은 1946년 1월에 속간되어 1949년 3월까지 9개호가 발행되었을 뿐이었다. 참고로 식민지시기의 개벽사에 대해서는 유석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잡지」,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정용서,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정용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 『역사와 실학』 57, 역사실학회, 2015 등 참조.

그동안 개벽사와 근대문학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중 대부분은 『개벽』과 사회주의 문학의 관계에 집중했다. 그 외 나머지는 주로 『부인』·『신여성』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여성문학과 아동문학에 관한 것이었다. 기왕의 연구들이 없었다면 이 글의 문제의식조차 제안되기 어려웠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이 특정 잡지들을 중심으로 개별적·부분적으로 수행된 까닭에 잡지들 간의 연동을 고려하며 개벽사의 문학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글은 그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문학사의 구성요소로서 문학시장의 교환기구가 수행하는 역할과 그 의미를 사회적 공간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사유해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 II.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과 그 특징

1920년 무렵에 천도교는 기관지 『천도교회월보』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각종의 교리서를 수시로 출판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별도의 인쇄매체기구를 증설하는 데 합의했다.<sup>9)</sup> 종교적인 인쇄매체만으로는 3·1운동의 여운 속에서 천도교의 사회적 입지를 확대해나가기에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립된 인쇄매체기구가 개벽사였다. 세속적인 인쇄매체의 출판을 전담했던 개벽사는 교단과 속세를 연결하는 다리였던 셈이다.

개벽사가 설립된 직후 그 창립멤버이자 천도교의 핵심 이론가였던 이돈화는 “朝鮮新文化의 建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新聞雜誌 購讀熱을 鼓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한 적이 있었다.<sup>10)</sup> 그러면서 그는 신문·잡지가 추구해야 할 지식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只今 우리 朝鮮사회에 먼저 知識을 어들려 하면 실로 難事의 하나일 것이나 그러나 지금 나의 知識 要求라 하는 것은 특히 專門의 知識을 이름이 안이오, 普遍的으로 누구든지 實地에 符合할 만한 普遍知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普遍知識”을 공급함으로써 사회 전 계층

9) 이 글에서는 ‘인쇄매체기구’를 신문사와 잡지사, 출판사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10) 李敦化, 「朝鮮 新文化 建設에 對한 圖案」, 『開闢』 4, 1920.9, 11면.

을 실질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개벽사에 부여된 사명이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개벽사가 고민했던 “보편지식”은 政論과 문학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sup>11)</sup> ‘무단정치’에 따른 정치적 표현의 극단적인 부자유, 3·1운동으로 한껏 달아올랐던 정치적 열기, 이 열기 덕분에 한층 더 뜨거워져 갔던 문학열, 요컨대 ‘문화정치’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다양한 욕망이 분출했던 1920년 무렵의 문화적인 분위기를 떠올려보면, 더구나 『太陽』, 『中央公論』, 『改造』와 같은 일본인의 잡지들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을 상기하면, 개벽사가 정론과 문학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시대착오적이고 이상스럽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 잡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론과 문학을 중심으로 한 개벽사의 잡지 구상은 새로운 개념의 잡지를 대중에게 선보인, 그야말로 혁신적인 것이었다.

1896년 2월에 한국 최초의 국문잡지로 알려진 『친목회회보』가 창간된 이래 잡지 편집의 주안점은 학술적·교과적인 근대지식의 전파에 맞춰져 있었다.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잡지가 1900년대를 주름잡았던 학회지였다. 지역주의 색채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지들은 하나같이 ‘論壇, 講演, 學園’ 같은 범주를 중시했다. 정론은 일제의 검열 때문에 조기 차단당했고, 문학은 잡지 내에서 그 위상이 아직 주변적이었다. 『조양보』나 『대한자강회월보』, 『야외』 등 소수의 잡지들만이 소설에 관심을 기울였던 일도 그렇지만 문학의 상위범주와도 같았던 ‘文藝’에 근대문학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소설이 좀처럼 편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학술적·교과적인 지식 중심의 잡지 편집양식에서 문학이 중시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당시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편집자가 최남선이었다. 『대한유학생회학보』의 편집 경험이 있었던 최남선은 학술적·교과적인 지식 중심의 편집양식을 해체시켜 문학을 그러한 지식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탄생한 『소년』 역시도 1900년대의 주류적인 잡지 편집양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했다. 문학은 여전히 근대지식의 하위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다.<sup>12)</sup>

11) 개벽사가 추구했던 정론과 문학은 기본적으로 천도교의 종교적 방향성에 따라 취사선택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벽사의 세속성에 초점을 맞춰기 때문에 종교성의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다. 개벽사의 종교성에 대해서는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7 참조.

12) 유석환, 앞의 2013 논문, 36~45면;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소년』 『청춘』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근대매체와 근대

이와 같은 잡지 편집양식이 근본적으로 해체된 것은 1910년대 중반을 통과하면서였다. 조선총독부의 극단적인 정론 통제와 그 반사이익을 챙겼던 문학, 아울러 저널리즘과 문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근대적인 문학 개념의 정립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잡지 편집양식의 전환을 자극했다. 이를테면, 1910년대에 가장 대중 지향적이었고, 그래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두 잡지 『신문계』와 『청춘』의 변화상을 살펴보자. 『청춘』의 속간 시점인 1917년 5월을 전후하여 『신문계』는 『반도시론』으로 일신하여 잡지시장에 다시 진입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정론의 전면화와 문학의 최소화였다. 반면에, 정론을 취급할 수 없었던 『청춘』은 『반도시론』이 외면한 문학에 휴간 이전 때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등장했던 것이 현상문예였다. 이것은 문학이 지식의 하위범주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고유한 위치, 곧 문예란을 잡지 내에 정초하는 계기로 작용했다.<sup>13)</sup>

요컨대, 개벽사의 첫 잡지 『개벽』은 『반도시론』의 정론과 『청춘』, 특히 속간 이후의 『청춘』이 보여준 문학을 결합함으로써 1910년대를 대표하는 두 잡지의 편향성 사이에서 균형을 꾀한 잡지였다. 그것은 식민지 조선인의 손에 의해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식의 잡지였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개벽사는 신문지법에 의거하여 『개벽』의 출원 허가를 얻었고, 제한 조건이었던 보증금 문제가 처리됨에 따라 『개벽』은 1922년 9월 12일부로 정론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sup>14)</sup> 물론 개벽사의 혁신성은 『개벽』에만 국한되진 않았다. 1920년대 내내 개벽사는 끊임 없이 인쇄매체의 혁신을 시도했는데, 그 정점을 보여준 인쇄매체가 『별건곤』이었다. 『개벽』이 조선총독부에게 대항하다 장렬하게 전사한 직후 개벽사가 “諷刺, 諧謔, 罵倒, 警戒로 本領”을 삼아 “순전히 趣味 中心으로써 任務와 使命”을 목적인, 그야말로 『개벽』과 정반대의 잡지를 시장에 내놓을 줄 그 누가 예상했겠는가.<sup>15)</sup>

그런데 문제는 『개벽』의 한계가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졌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요구했던 『개벽』으로는 독자층의 저변을 넓히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개벽사도 일찍부터 인지하여 원고는 “꼭 말글로

언어질서의 상관성』, 성균관대 출판부, 2006, 311~321면.

13) 유석환, 앞의 2013 논문, 52~59면; 유석환, 「근대 초기 잡지의 편집양식과 근대적인 문학 개념, 『대동문화연구』 88, 대동문화연구원, 2014.

14) 「雜誌 四種 許可」, 『東亞日報』, 1922.9.16, 2면.

15) 「자랑號 넘으시는 분에게」, 『別乾坤』 12·13(합본호), 1928.5, 1면.

써주셔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sup>16)</sup> 하지만 개혁사의 요청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웠다. 1920년대의 한 논객은 잡지가 최신의 지식과 정보, 어휘로 구성될수록 문해력이 부족한 독자들은 잡지의 문학에만 빠져 결국 잡지가 “소설 중독, 문학 중독”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다.<sup>17)</sup> “당시 十二, 三世의 어린 나이여서 『개벽』의 전 내용을 읽을 수는 없고 뒷부분의 소설을 읽곤” 했다는 백철의 회고대로 『개벽』의 사회적 입지가 뚜렷해질수록 『개벽』이 포괄할 수 없는 사각지대도 명확해졌다.<sup>18)</sup> 개혁사가 사회 전 계층을 자신의 독자로 삼기 위해서는 『개벽』의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잡지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 개혁사 미디어 전략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돈화가 말했던 “보편지식”을 연령·성별·학력·직업 등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구분했다는 것이다. 즉 개혁사는 “보편지식”을 계층화시켜 그에 걸맞은 다중잡지체제를 구축했다. 개혁사는 『개벽』의 첫 번째 자매지 『부인』의 발행허가원을 『개벽』의 경우와 같이 신문지법에 의거하여 제출했지만,<sup>19)</sup> 그 시도는 무산되어 『부인』은 출판법의 적용을 받는 잡지로 창간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 『개벽』과 『부인』의 경계는 더 엄격해질 수 있었다. 『개벽』이 시사종합지시장을 본격적으로 장악해나갔던 1923년 중반, 바로 그 무렵에 『부인』이 『신여성』으로 개편되고, 『어린이』가 12면 분량으로 월 2회 발행되었던 방식에서 월간잡지의 형태로 전환되었던 일은 우연이 아니다. 『별건곤』의 창간 직후 그것과 『신여성』의 내용이 중복되자 개혁사가 『신여성』을 즉시 휴간시켰던 일이라든지,<sup>20)</sup> 잡지의 독자성·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학생』을 자진 폐간시켰던 일,<sup>21)</sup> 새로운 시사종합지 『혜성』이 창간되면서 그동안 그 역할까지 떠맡고 있었던 『별건곤』을 알파한 “五錢雜誌”로 바꾸었던 일<sup>22)</sup> 등등 이 모든 조치는 다중잡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잡지들 간의 경계를 엄수하고자 했던 개혁사의 미디어 전략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16) 「投稿하시는 이에게 編輯局 啓告」, 『開闢』 16, 1921.10, 146면.

17) 丁炳基, 「여학생과 신문잡지」, 『新女性』, 1924.12, 14면.

18) 「續刊될 開闢誌에 대하여」, 『新人間』 266, 1969.7, 23면.

19) 「本會 各部 事業 經過」, 『天道教青年會會報』 4, 1922.9, 8면.

20) 「社告」, 『別乾坤』 2, 1926.12, 11면.

21) 「『學生』廢刊에 對하여」, 『學生』 18, 1930.11, 112~113면.

22) 「卷頭言」, 『別乾坤』 38, 1931.3, 3면.

정론과 문학에 중점을 둔 『개벽』과 이를 중심으로 한 다중잡지체제의 유지에 핵심 역량을 집중했던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은 책 출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개벽사가 출판한 책은 『사랑의 선물』(1922), 『朝鮮之偉人』(1922), 『人乃天』(1924), 『社會主義學說大要』(1925), 『朝鮮 자랑』(1928), 『中國短篇小說集』(1928), 『朝鮮近世史十三講』(1930), 『갈넵피리』(1930) 이상 8권이다.<sup>23)</sup> 이 8권 중 『사랑의 선물』과 『중국단편소설집』만 잡지를 거치지 않고 출판한 것이었고, 나머지 6권은 잡지의 연재물 혹은 특집호로 발행된 잡지를 책자 형태로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었다. 당대 베스트셀러 동화집이었던 『사랑의 선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학설대요』도 최소 5판이 매진될 정도로 그 수요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잡지의 연재물을 책으로 다시 출판하는 일은 정치적·경제적으로 검증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개벽사로서는 보다 손쉽게 책 출판사업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개벽사는 잡지 종수만큼 못 될 정도로 책 출판에 소극적이었다.

확실히 개벽사의 책 종수 규모는 1910년대에 120여 종의 책을 출판했던, 『청춘』의 발행 주체 신문관과 비교해보면,<sup>24)</sup> 다소 의아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신문관은 개벽사만큼 다종의 잡지를 동시에 발행하지 않았다. 자체 인쇄소를 갖추고 있었던 신문관은 잡지사라기보다는 출판사였던 셈이다. 『청춘』과 경쟁했던 『신문계』의 발행 주체 新文社도 마찬가지였다. 『신문계』(1913.4.~1917.3.)가 결호 없이 매달 발행되는 동안 그 자매지였던 『우리의 가명』(1913.12.~1914.11.)은 조기 종간되었다. 新文社가 출판한 책은 『朝鮮の迷信と俗傳』(1913)과 『府郡廢合最新朝鮮地圖』(1914), 『가나다國語大典』(1914), 『日鮮對譯書翰文獨習』(1915), 『最新實用朝鮮百科大全』(1915), 『簡明法律經濟熟語辭海』(1917) 등 소수에 불과했다.<sup>25)</sup> 5년 동안 매달 2권씩 120권의 출판 계획을 가지고 야심 차게 출범했던 “青年文庫”도 4권으로 막을 내렸고,<sup>26)</sup> 그 나머지 계획은 『신문계』의 부록으로 흡수되었다. 그러고 보면 자체 인쇄소를 갖추지 않았던 新文社는 신문관과 달리 출판사라기보다는 잡지사였던 셈이다. 사실 특정 인쇄매체의 영역을 넘나들며 그 발행을 동시에 감당하는

23) 유석환, 앞의 2006 논문, 23면.

24) 이경현, 「1910년대 新文館의 문학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89면.

25) 新文社의 책 목록은 필자가 조사한 것과 박진영 교수가 조사한 것을 합쳐서 파악한 것이다.

26) 「青年文庫」, 『新文界』 31, 1915.10.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인쇄매체의 발행 주체로서 가장 큰 자본력을 가진 新聞社도 1930년대에 들어서야 잡지시장에 뛰어 들 수 있었고, 전성기 때의 조선일보사처럼 특정 시기 동안만 신문·잡지·책의 발행을 두루 아우를 수 있었다.<sup>27)</sup>

기업 역량의 부족부터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에는 여전히 열악했던 시장구조에 이르기까지 개벽사가 잡지 간행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개벽사가 시종일관 자신의 미디어 전략을 고수한 사실이다. 이를테면, 『개벽』 창간 만 4년이 된 시점에 개벽사는 『개벽』의 총 발행부수 434,000여 권 중 약 1/4에 해당하는 112,000여 권을 조선총독부가 압수했다고 밝혀다.<sup>28)</sup> 어림잡아도 최소 수만 원대의 매물비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벽사는 자신의 미디어 전략을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한 치도 굽히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1920년대 잡지시장의 상황은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는 데 상당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의 검열과 함께 경영난과 같은 내부 문제 때문에 시사종합지들의 폐간·휴간이 속출했던 상황에서 구독자로서는 발행을 거르지 않았던 『개벽』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sup>29)</sup> 더구나 『개벽』이 조선총독부의 통제 앞에서도 강경 일변도의 정론을 고수했으니 독자들 사이에서 『개벽』의 주기는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時代的 寵兒”로서 “新聞支局이나 書店치고 『開關』誌 없는 데가 없고”, “靑年들치고 外出할 때면 의례히 短杖 들 듯이 이 『開關』을 옆에 끼고 다니었다”는 박영희의 회고는 과언이 아니었다.<sup>30)</sup> 사정의 내용은 달랐지만 같은 시기에 『신여성』과 『어린이』의 위상도 『개벽』과 비슷했다. 이론의 여지 없이 『신여성』은 『신가정』(1933년 1월 창간)과 같은 신문사의 여성잡지가 창간되기 전까지 여성잡지시장에서 경쟁지가 부재했던 독보적인 여성잡지였다. 『어린이』에게는 비록 『신소년』을 비롯한 경쟁지가 몇 종 있었지만 소파 방정환이라는 불세출의 아동문학 작가이자 아동잡지 편집자 덕분에 『어린이』의 아우라까지 모방할 수 있었던 아동잡지는 없었다.

27) 유석환, 「식민지식 문학시장 변동 양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3): 조선일보사 편」, 『반교어문연구』 51, 2019, 242면.

28) 「開關運動萬歲」, 『開關』 49, 1924.7, 2면.

29) 유석환, 앞의 2006 논문, 39~42면.

30) 朴英熙, 「新興文學의 擡頭와 開關時代 回顧」, 『朝光』 32, 1938.06, 54면.

### Ⅲ. 문학시장의 교환기구로서 개벽사의 역할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은 당연히 그 잡지들의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중잡지체 제에 맞게 잡지들의 문학도 연령·성별·학력·직업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층화되었다. 그 대략적인 양상에 대해 먼저 다중잡지체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개벽』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표 1〉 『개벽』 문학의 시기별 평균 비중: 1920~1926<sup>31)</sup>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1924년	1925년	1926년
	01~06호	07~18호	19~30호	31~42호	43~54호	55~64호	65~72호
문학비중	27.6%	30.6%	33.4%	34.2%	29.1%	39.6%	39.1%
시가비중	15.5%	8.9%	18.9%	17.9%	8.7%	6.4%	8.9%
소설비중	26.0%	36.4%	43.5%	41.6%	54.4%	59.5%	68.6%
희곡비중	26.0%	13.3%	15.8%	12.8%	17.1%	11.4%	2.6%
평론비중	32.5%	41.5%	21.8%	27.7%	19.8%	22.7%	20.0%

<표 1>은 『개벽』의 전체 지면 분량에서 문학(수필 제외)이 차지하는 분량의 평균 값과 문학 전체의 분량에서 개별 장르들이 차지하는 분량의 평균값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예컨대, 1920년 동안 문학의 평균 비중은 27.6%였는데, 이때 소설은 문학 전체에서 26.0%를, 평론은 32.5%를 차지했다는 식으로 표를 읽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1923년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양상을 살펴보면, 문학의 평균 비중은 1924년에 이례적으로 하강했다가 그다음 해부터는 급증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 급증을 주도했던 장르는 소설이었다. 시가와 평론의 비중이 각각 10% 미만과 20% 내외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희곡의 비중이 급감했던 것과 다르게 소설만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31) 유석환, 앞의 2013 논문, 125면의 것을 재인용했다. 참고로 『開闢』은 조선총독부로부터 발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1925년 9·10월을 제외하고는 1920년 6월부터 1926년 8월까지 매달 발행되었다.

보여 결국 1926년 동안 소설의 평균 비중은 1920년의 것에 비해 2.5배 이상을 기록했다. 요컨대,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벽』의 문학은 시간이 갈수록 소설화하는 양상을 보였다.<sup>32)</sup>

소설화 경향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개벽사는 정론 통제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갔던 현실에 직면하여 정론을 대체할 수 있는 서사 양식을 소설에서 찾았다. 개벽사는 소설화 경향이 뚜렷해져 갔던 1925년 1월에 학예부의 책임자로 박영희를 기용했다. 소설의 주요 작가(1923년 기준)도 현진건, 임장화, 염상섭, 나도향, 김동인 등에서 박영희, 이기영, 이익상, 현진건, 김기진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소설의 예술성보다는 그 정론성을 한층 강화했다.<sup>33)</sup>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검열만이 개벽사를 자극한 것은 아니었다. 소설의 비중을 급격히 늘려나갔던 개벽사로서는 문학을 중시했던 여타의 인쇄매체들과 『개벽』과의 변별력 유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개벽사는 신문들이 가장 중시했던 중·장편의 연재소설 대신 1회 분량의 단편소설에만 철저히 집중했다. 『개벽』에 수록된 114편(총 연재횟수 143회)의 소설 중 연재소설은 13편이었는데, 그중 2회 분량의 3편만이 1923년 이후에 『개벽』에 수록되었다. 『개벽』의 유일한 장편소설이었던 현진건의 『지새는 안개』(1923.2~10)의 연재가 소설화 현상이 현저해지기 직전에 중단되었던 일도 새삼 주목할 만하다. 정론적인 성격이 짙은 『개벽』의 단편소설과 유사한 단편소설을 동 시기에 주로 취급했던 인쇄매체로는 『조선일보』를 꼽을 수 있는데, 『조선일보』의 단편소설 규모는 신문들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개벽』보다도 작았다. 『개벽』과 똑같이 단편소설에 집중했던 『조선문단』의 경우 그 주요 작가는 방인근, 최학송, 나도향, 전영택, 염상섭, 이광수 등이었다. 『개벽』 후반기에 배제된 작가들이 『조선문단』의 주요 작가들이었다.<sup>34)</sup> 요컨대, 정론적인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 『개벽』의 소설화 경향은 정치적·경제적

32) 유석환, 「식민지시기 근대소설의 발흥과 천도교 매체의 역할」,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245면.

33) 『개벽』 문학의 정론적 성격에 관해서는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7, 418~439면 참조.

34) 유석환, 앞의 2013 논문, 129면과 131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개벽』의 문예란과 대척점에 있었던 것이 『어린이』의 문예란이었다. 『어린이』의 문예란은 그 잡지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개벽』의 실제적·잠재적 독자층과는 가장 거리가 먼 독자층을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 말하면, 『개벽』이 규모가 가장 작은 상층의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었다면, 『어린이』는 규모가 가장 큰, 그 저변부에 위치한 독자층을 포괄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개벽사가 『어린이』의 문예란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살펴보자.

〈표 2〉 『어린이』 문학의 시기별 평균 비중: 1923~1929

	1923년	1924년	1925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01~11호	12~23호	24~35호	36~46호	47~54호	55~61호	62~70호
문학비중	50.7%	51.7%	43.2%	46.0%	57.6%	44.4%	41.0%
시가비중	5.1%	6.3%	6.2%	7.7%	5.1%	3.5%	5.4%
동화비중	71.8%	87.4%	71.3%	64.6%	55.1%	64.8%	56.2%
소설비중	5.5%	2.0%	17.1%	15.0%	31.6%	21.5%	32.0%
희곡비중	17.6%	2.0%	5.4%	12.7%	8.2%	7.8%	6.4%
평론비중	0.0%	2.3%	0.0%	0.0%	0.0%	2.3%	0.0%

보다시피 『어린이』는 개벽사의 잡지들 중 문학에 가장 많은 분량의 지면을 할애한 잡지였다. 한마디로 개벽사의 잡지들 중 가장 문학적인 잡지가 『어린이』였다. 이는 문학만큼 하위계층에 접근하기에 효과적인 언어 형식도 없다는 역사적인·실제적인 경험에 따른 결과였다. 개벽사는 『어린이』의 문예란을 위해 동화와 동요동시를 『개벽』에 간헐적으로나마 수록했던 일을 아예 중단했다. 1922년 8월 무렵에 『개벽』에서 단 한 차례 실시되었던 전래 동화 현상 모집도 『어린이』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전의 일이었다. 다시 말해 동화와 동요동시(『어린이』의 전체 시가 중 동요동시가 95% 이상)를 중심으로 한 장르 편중 현상은 『개벽』과 『어린이』의 문예란을 구분 짓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다. 개벽사는 독자의 실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독자란을 포함하여 각종의 현상 공모 운영에서도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 운영을 『개벽』의 경우에는 최소화, 『어린이』의 경우에는 최대화하는 것이 개벽사의 기본 입장이었다. 물론 『개벽』에서도 독자 투고를 창간 때부터 모집했다. 하지만 『개벽』의 독자란은 초기(5호(1920.1)~12호(1921.6) 정도)에만 활발히 운영되었을 뿐이다. 『개벽』이 현상문예에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반대로 『어린이』에서는 “讀者談話室”로 불렸던 독자란을 상설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각종의 문제 풀이를 비롯하여 동화·동요동시·수필 등의 현상 공모도 수시로 실시되었다.

요컨대, 『개벽』의 문예란이 그 정론성에 기초하여 운영되었다면, 『어린이』의 문예란은 독자와의 친화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이 두 잡지의 평론 비중이다. 『개벽』의 평론은 초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결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어린이』에서 평론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비판적인 언어를 앞세워 문학의 권위를 추구했던 『개벽』의 평론은 『개벽』의 정론성과 일맥상통한 것이었던 데 반해 『어린이』에 있어서는 그 친화성의 장애물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개벽사는 『개벽』과 『어린이』의 문예란이 변별력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 『개벽』이 문학을 통해 정론성을 한껏 발하고 있었던 때 『어린이』의 문학이 역사소설이 아니라 역사동화를 통해 『개벽』의 문학과 연동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sup>35)</sup>

다만 주의할 사실은 『어린이』 문예란의 변모 현상이다. 시간이 갈수록 『어린이』에서 동화가 감소하는 만큼 소설의 비중이 증가해 갔다. 특히 『어린이』의 소설은 “少年小說”이라는 표지를 띠고 등장했던 일이 점점 잦아졌다. 이는 시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요동시를 제외한 소수의 시가는 주로 1920년대 후반기에 등장했는데, 그 대부분이 “少年詩”라는 장르 표지를 달고 『어린이』에 수록되었다. 개벽사로서는 점점 성장해 갔던 『어린이』의 독자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개벽사에게는 『개벽』의 독자층과 『어린이』의 독자층 사이에 존재하는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잡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했던 것이 『학생』이었다.

35) 『어린이』의 역사동화에 대해서는 유석환, 앞의 2006 논문, 50면.

<표 3> 『학생』 문학의 시기별 평균 비중: 1929~1930

	01~03호	04~06호	07~09호	10~12호	13~15호	16~18호
문학비중	13.0%	21.0%	45.9%	35.8%	12.8%	27.4%
시가비중	3.0%	6.3%	4.9%	12.6%	0.0%	2.6%
소설비중	45.3%	19.9%	0.0%	9.0%	29.3%	38.2%
희곡비중	16.7%	35.4%	0.0%	9.6%	7.1%	0.0%
평론비중	0.0%	6.9%	3.5%	26.9%	29.6%	25.8%
현상문비중	35.0%	31.5%	91.5%	41.9%	34.0%	33.4%

『학생』의 짧은 발행기간(1929.3~1930.11)을 고려하여 앞의 두 잡지와 다르게 좀 더 세분해서 호수를 구분한 <표 4>에서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현상문 비중을 별도로 계산하여 반영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학생』 문예란의 핵심적인 특징이었기 때문이다. <표 4>에서 시가·소설·희곡·평론의 비중이 기성 작가에 의해 구현된 것이라면, 현상문은 전적으로 독자에 의한 것이었다. 개벽사는 “學生文壇”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 문예란의 1/3 정도를 독자에게 줄곧 제공했다. 특히 『학생』 7~9호의 문예란은 전적으로 독자의 문학으로만 꾸며질 정도였다. 철저하게 기성 작가의 작품만 수록하려고 함으로써 『개벽』의 문예란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데 반해 『학생』의 문예란은 그야말로 개방적이었다. 「학생소설 창작 릴레이」(7~10호)와 같은 기획, 그것도 그 하나만으로 문예란을 꾸며보겠다는 발상은 『개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독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던 『어린이』의 경우에는 독자의 역량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요컨대, 독자에게 문예란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독자의 작품으로 문예란을 구성하겠다는 발상에서 『학생』 문예란의 독자성이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개벽사가 『학생』만의 독특한 개성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초기 종간은 불가피했다. 그에 대한 입장을 개벽사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元來 本社에서 發行하는 『別乾坤』이 一般 社會人을 相對로 한 것이고, 『어린이』가 兒童을 中心으로 한 것과 가치 『學生』은 純全히 學生大衆을 그 對象으로 하여 그에 準據해 標準을 세웠고 內容을 限定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客觀的 許多한 情勢에 따라 朝鮮 學生들의 思潮는 엄청나게 變하였다. 그들의

趣味와 目標과 動向은 學生의 領域에서 倏然히 自適할 수 업는 形편에 일은 것이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社會人과 學生 間의 境界線을 뛰어넘어서 朝鮮의 모든 社會實情에 對하여 가튼 關心과 思慮를 가지게 되어 學生이라 하여 度外視하고 區分할 아무런 內容의 特殊性을 認定할 수 업는 處地에 일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取扱 內容의 範圍가 極히 制限되어 잇는 『學生』誌로는 到底히 오늘날 朝鮮 學生의 呼吸을 맞추어 갈 수 업시 된 것이다.<sup>36)</sup>

이미 언급했던 대로 개벽사는 『개벽』과 『어린이』의 독자층을 염두에 두며 그 중간의 독자층을 상대로 『학생』을 구상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리한 시도였음을 자인했다. 『개벽』의 실제적인 독자층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학생에게 필요한 잡지는 『학생』이 아니라 『개벽』과 같은 시사종합지였기 때문이다. 『학생』의 후반기에 그 문예란에서 평론 비중과 소설 비중이 동반 증가한 것, 마치 『학생』의 문예란이 『개벽』의 문예란을 조금씩 닳아 갔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새로운 시사종합지(『혜성』 1931년 3월 창간)의 창간과 함께 『학생』이 자진 폐간되었던 까닭도 그 때문이었다. 시사종합지와 『학생』의 독자층은 그만큼 중첩되어 있었던 것이다. 비록 『학생』은 조기 폐간되었지만, 시사잡지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개벽사가 독자층의 분할과 그에 따른 잡지 내용의 선택적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생』의 유의미함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과 완전히 다른 운명을 보인 잡지가 『신여성』이었다. 개벽사는 『별건곤』에 통합시켰던 『신여성』(휴간기: 1926.11~1930.12)을 다시 독립시켜 속간하는 대신 『학생』을 창간했다. 개벽사는 『어린이』 독자층의 성장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개벽』 및 『신여성』의 독자층을 다시금 되찾는 것이 『학생』에게 부여된 사명이었다. 그러나 결국 개벽사는 새로운 시사종합지의 창간과 함께 『학생』을 포기하고 『신여성』을 선택했다. 개벽사로서는 이른바 제2의 『개벽』 시대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기에는 시사종합지를 중심으로 한 다종잡지체제에서 『학생』보다는 『신여성』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판단과 경험이 작용했다. 다음에서는 1920년대 전반기에 발행된 『부인』과 『신여성』의 문학을 통해 개벽사가 그와 관련한 경험을 어떻게 축적했는지를 알아보자.

36) 「社告: 『學生』廢刊에 對하여」, 『學生』 18, 1930.11, 112~113면.

<표 4> 『부인』·『신여성』 문학의 시기별 평균 비중: 1922~1926<sup>37)</sup>

	부인		신여성			
	1922년	1923년 上	1923년 下	1924년	1925년	1926년
	01~06호	08~14호	01~02호	03~11호	12~21호	22~31호
문학비중	21.7%	19.3%	14.5%	15.7%	20.5%	25.4%
시가비중	11.2%	29.4%	29.0%	33.0%	32.1%	16.6%
동화비중	23.8%	35.3%	0.0%	5.9%	3.3%	39.3%
소설비중	49.2%	32.1%	71.0%	45.9%	60.3%	38.9%
희곡비중	15.9%	0.0%	0.0%	5.5%	0.0%	5.2%
평론비중	0.0%	3.2%	0.0%	9.8%	4.4%	0.0%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부인』은 그 제호와 같이 주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였고, 『신여성』은 그 핵심 독자층을 여학생으로 설정한 잡지였다. 두 여성잡지의 문예란은 그 차이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다. 『부인』에 비해 『신여성』의 문학비중이 약간의 기복을 보이긴 해도 두 잡지 모두 잡지 전체 분량의 20% 내외 수준에서 문예란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구성 방식은 상당히 달랐다. 그 결정적 차이는 동화와 동요동시 등의 아동문학에서 비롯되었다.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인』에서 산문문학의 핵심 장르는 동화였던 데 반해 『신여성』에서는 소설이었다. 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시가의 경우에도 『부인』에 수록되었던 총 31편의 시가 중 동요동시는 8편으로 시가 전체에서 약 25%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에, 『신여성』의 경우 총 86편의 시가 중 동요동시는 4편(약 4.7%)뿐이었다. 그 4편의 동요동시도 『신여성』 초기(1·2·3·8호)에만 실렸다.

주목할 점은 『부인』에서 『신여성』으로의 전환기가 개벽사의 또 다른 잡지들이었던 『개벽』과 『어린이』의 정체성이 더욱 명확해졌던 때였다는 사실이다. 개벽사는 아동문학을 『어린이』에 일임시킴으로써 나머지 다른 두 잡지와 다른, 『어린이』 문예란의 독자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때 개벽사는 시가와 평론을 통해 『개벽』과도 다른,

37) 『婦人』은 통권 14호까지 발행되었다. 이 표에는 그 14개호 중 13개호만 반영되었다. 남은 1개호는 실물이 학계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통권 10호(1923년 4월호)이다. 『新女性』의 경우에는 1920년대에 발행된 31개호가 모두 반영되었다.

『신여성』 문예란만의 독자성을 추구했다. 보다시피 『부인』이나 『신여성』 모두 평론은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 평론 특유의 비판적·논설적인 언어는 여성잡지보다는 정론을 취급하는 시사종합지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과 함께 여성은 비평의 주체라기 보다는 객체라는 관념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부인』·『신여성』의 문예란은 『개벽』이나 『학생』보다는 『어린이』와 더 가까웠다. 하지만 현상 모집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부인』·『신여성』의 문학은 『어린이』의 문학에 대해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벽사는 시가를 통해 여성잡지 문예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시가의 비중은 『부인』의 후반기에서 문학 전체 분량에서 30% 내외 수준으로 치솟은 후 『신여성』으로의 재편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유지했다. 개벽사의 여성잡지들이 보여주는 시가의 비중은 이 글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잡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었다. 분량이 가장 적은 시가의 장르적 속성을 상기하면, 『부인』·『신여성』의 시가 비중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그만큼 개벽사는 여성잡지에서 시가를 남다르게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개벽사는 잡지 편집방침의 재편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문학 혹은 문학의 여성성에 대한 일관된 관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6년 접어들면서 여성잡지 문학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여성잡지의 핵심 문학장르였던 시가 비중은 반토막이 났고, 소설의 비중도 급격히 감소했다. 이 두 장르의 감소분만큼 동화의 비중이 급증했다. 이는 개벽사의 다중잡지 체제에서 『신여성』의 변별력이 약화되고,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신여성』은 1926년 10월호를 끝으로 내용적 유사함이라는 이유 아래 『별건곤』에 통폐합되었다. 물론 개벽사가 새로운 시사종합지 『혜성』을 창간하면서 다중잡지체제를 재정비했을 때 『신여성』의 문학은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했다. 1931년의 경우 문학 전체의 평균비중은 15.3%였고, 시가는 32.4%, 소설은 61.8%, 희곡은 5.8%, 동화와 평론은 0%였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그 이후에도 줄곧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개벽사는 잡지의 실제적·잠재적 독자층에 맞추어 해당 잡지의 문예란을 잡지들 간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구성했다. 독자층의 분할에 따라 문학 또한 분할되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독자층을 일정하게 분할하지 않고 가급적 모든 계층을 아우른, 그야말로 전체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때의 문학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

이에 대한 답을 개벽사는 『별건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여줬다.

〈표 5〉 『별건곤』 문학의 시기별 평균 비중: 1926~1929<sup>38)</sup>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01~02호	03~10호	11~17호	18~24호
문학비중	24.3%	9.0%	2.7%	4.8%
시가비중	8.2%	28.7%	53.1%	51.6%
소설비중	91.8%	62.1%	0.0%	16.0%
희곡비중	0.0%	9.2%	46.9%	15.3%
평론비중	0.0%	0.0%	0.0%	17.1%

개벽사는 일정한 독자층에 최적화된 잡지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별건곤』을 기획했다. 아무런 부담 없이, 무엇보다 연령과 성별, 학력, 직업 등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잡지가 『별건곤』이었다. 이를 위해 개벽사는 『별건곤』의 핵심적 성격을 “趣味雜誌”로 규정했다. 어떻게 해서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는 사명이 그 ‘취미’에 부여되었고, 이는 다양한 앙케트와 함께 각종의 이야기들로 구체화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에로·그로·넌센스’라고 불릴 그 이야기들이 1920년대 후반기의 『별건곤』에서는 ‘記·話·談’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등장했다.<sup>39)</sup>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표5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개벽사의 잡지들 중 『별건곤』은 문학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잡지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8호와 12·13호(합호), 22호, 23호는 단 한 편의 시가도 게재되지 않았을 정도였다. 다시 말해 소설을 중심으로 문예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던 7호까지의 『별건곤』이나 그 소설이 다시금 본격적으로 실렸던 24호부터의 『별건곤』은 개벽사가 의도했던 『별건곤』이 아니었다. 그 두 시기 사이에 발행되었던 『별건곤』(8~23호)이 개벽사가 구상했던 본래의 이미지에 가까운 『별건곤』이었다. 왜냐하면, 창간 직후에는 『별건곤』

38) 1920년대에 『別乾坤』은 원활히 발행되지 못했다. 1926년 11월부터 1929년 12월까지 38개월 동안 22개호가 발행되었다. 1926년에 2개호, 1927년에 8개호, 1928년에 5개호(12·13호와 16·17호는 합호로 발행), 1929년에 7개호가 발행되었다.

39) 『別乾坤』의 이야기체에 대해서는 이경돈, 『문학 이후』, 소명출판, 2009, 359~437면 참고.

에 『신여성』이 통합되는 한편, 새로운 시사종합지의 창간이 실패함에 따라 그 역할까지 『별건곤』에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24호부터의 『별건곤』에서는 새로운 시사종합지 『혜성』이 창간(1931.3)되기 전까지 그것을 예비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특별부록 논문 및 강담집」(24호), 「10년간 조선의 변천」(25호), 「학술강좌」(26호), 「춘계특집 부록: 학술강좌」(27호), 「지상특설 강좌」(28호) 등 『별건곤』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평론적·학구적인 글이 수록되더니 결국 29호부터는 “政治, 經濟에 關한 問題를 掲載”한 시사란이 설치되었다.<sup>40)</sup>

『별건곤』이 『별건곤』 다올수록 문학이 부재했던 까닭은 잡지 내에서 문학과 비문학 간의 경계가 다른 잡지들에 비해 상당히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소설은 『별건곤』에서 ‘記·話·談’의 이야기들이 활성화될수록 잡지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8~23호에서 소설이 부재했던 까닭은 그 때문이었다. 소설이 소설로서의 가치를 발할 수 없었던 조건에서 굳이 소설을 배치할 이유를 개벽사의 편집진은 찾지 못했던 것이다. 문학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별건곤』에 개벽사가 그나마 시가나 희곡을 한두 편 실었던 까닭도 그 때문이다. 시가나 희곡은 소설과 다르게 그 형식의 특징이 확연했기 때문이다.<sup>41)</sup>

이렇게 『별건곤』은 개벽사의 잡지들 중 문예란이 가장 부실하게 운영된 잡지였다. 그런데 잡지 전체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별건곤』의 속성을 상기하면, 『별건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벽사 잡지들 중 가장 문학적인 잡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벽사로서는 문예란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개벽사는 『별건곤』의 독자가 다른 잡지들의 독자가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잡지들 간의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 IV. 개벽사의 유산과 문학시장의 계층화

개벽사는 1935년을 전후하여 결국 몰락했지만 개벽사의 근 15년간의 활동은 근대

40) 「特告」, 『別乾坤』 29, 1930.6, 13면.

41) 유석환, 앞의 2006 논문, 2006, 74면.

한국의 지식문화사 및 문학사에 적지 않은 자취를 남겼다. 그 양상의 일단을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판매도서목록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발행처가 달라도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출판사와 서점이 분업보다는 겸업을 이루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발행처가 다양한 판매도서목록을 대상으로 시계열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판매도서목록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살펴보면,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 핵심은 교양서가 그동안 판매도서목록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했던 교과서를 누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sup>42)</sup>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양서의 위상 강화를 주도했던 책은 문학책이었다. 박문서관의 1927년판 판매도서목록은 그 변화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초기의 판매도서목록이었다.

〈표 6〉 1927년판 박문서관의 판매도서목록: 책 분류와 그 종수

분류항목	종수	분류항목	종수	분류항목	종수	분류항목	종수
新小説及古代小説	297	童話及童謠	13	作文書類	9	雜書類	48
雜歌書類	14	經書類	16	數學書類	13	白紙版舊書目錄	50
漢文小説書類	15	詩律及法帖書類	33	運動及遊戲書類	14	普通學校兒童教科用	13
文藝小説書類	157	新詩集類	23	演說及式辭法類	13	普通學校教師用	11
修養書類	20	教科及教育參考書類	42	歷史及地理書類	27	高等普通學校用	9
偉人傳記書類	46	普校高普教科參考書	25	政治法律經濟學	21	師範學校用	1
思想書類	18	字典及辭典書類	15	書式書類	8	實業學校用	3
哲學及宗教書類	38	語學及文法書類	56	尺牘書類	72	一般用	2
야소교서류	34	理科書類	16	醫學書類	18	日本文辭書案内	55
脚本書類	16	簿記學書類	4	滑稽書類	20	唐板各種分類目錄	608
音樂書類	40	實業書類	16	家庭學書類	13	·	
분류항목 합계		43개		책 종수 합계		1,982종	

42) 유석환,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 566~567면.

판매도서목록의 책 분류법에서 “新小說” 하나로 출발했던 문학은 계속해서 자기 확장을 도모해 갔다. 그 결과 박문서관의 1927년판 판매도서목록에서는 문학과 관련된 분류항목 수가 7개 정도로 증가했다. “新小說及古代小說, 漢文小說書類, 文藝小說書類, 脚本書類, 童話及童謠, 詩律及法帖書類, 新詩集類” 등이 그것이다. 판매도서 목록에서 문학책 종수의 비중도 7% 내외(1910년)에서 약 27%로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문학의 위상 강화와 함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던 특정한 분류항목들이 책 분류법에 생겨났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과 아동 문학, 해학과 관련한 분류항목이었다. 박문서관의 판매도서목록에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표 7〉 1927년판 박문서관의 판매도서목록에서 여성·아동문학·해학 관련 책들

분류항목	책 제목
童話及童謠 (13종)	사랑의 선물, 童謠集 꽃이슬, 童話集 어린이나라, 天使의 선물, 금방울, 새로 핀 無窮花, 世界一周童話集, 修養讀物童話集, 사랑의 동무, 우슴의 꽃, 어린 동무, 쓰림童話, 朝鮮童謠集
滑稽書類 (20종)	수수씩기와 奇談集, 우슴소리, 익살주머니, 八道才談集, 仰天大笑, 짤짤우슴, 半萬年間 朝鮮奇談, 警心百話, 日鮮笑話及滑稽話, 拍案驚奇, 萬古奇談, 朝鮮俗談, 不可殺爾, 奇人奇事錄, 東西古今, 日鮮歌謠及才談集, 弄假成真, 조선재담, 신기한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멧팅구리 재담집
家庭學書類 (13종)	新舊朝鮮料理法,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諺文家庭寶鑑, 最新日用家庭寶鑑, 名媛新女子寶鑑, 新訂家政學, 洋服裁斷裁縫法全書, 文化生活家庭讀本, 家庭教育, 朝鮮料理製法, 朝鮮裁縫全書, 裁縫參考書, 新式婦人治家法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들에서 아동문학 관련 분류항목인 “童話及童謠”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삼광서림이 발행한 1925년판 판매도서목록에서였다. 한성도서주식회사의 1931년판 판매도서목록에서는 그와 함께 “少年書”라는 분류항목을 추가했다. 한편, 여성 관련 분류항목은 신문관의 1914년판 판매도서 목록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그때는 교육 관련 분류항목과 결합되어 “教育及家政書類”로 나타났다. 여성 관련 분류항목이 독립되어 등장한 것은 박문서관의 1927년판이 처음이었고, 이 이후부터 그런 식으로 유지되었다. 해학 관련 분류항목은 문창사

의 1923년판 판매도서목록에서 “奇談滑稽部”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 삼광서립의 1925년판 판매도서목록부터는 박문서관의 판매도서목록의 경우처럼 “奇談”이 빠지고 “滑稽”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다만 한성도서주식회사의 판매도서목록에서는 해학 관련 분류항목이 “才談·野談·俗談”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은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 특히 다중 잡지체제에 호응하는 현상을 보여줬다.

물론 판매도서목록에서 해학 관련 책들의 출현 시기가 시사하는 것처럼 개벽사의 활동 시기, 특히 그 전성기를 고려하면 방금 확인했던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의 변화가 반드시 개벽사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벽사만큼 그런 분류항목의 출현과 안정화에 기여한 인쇄매체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지식과 문학이 특정 계층과 결합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형태로 사회 전반에 걸쳐 내면화·자연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쇄매체의 지속성과 함께 그 사회적 파급력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회적인 출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책만으로는 그러한 관념이 사회적 실체로서 형성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발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간행물이 그런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더구나 당시에 개벽사는 더할 나위 없는 사회적 위상을 갖춘 인쇄매체기구가 아니었던가.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사실은 해당 시기에 문학책의 위상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던 현상이다. 무엇이 그러한 현상을 유도했던 것일까? 출판사·서점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문학을 향한 대중적인 열망과 취향은 어떻게 만들어졌던 것일까? 문학의 작가와 독자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해 왔다. 그 답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가장 이른 시기의 답변부터 최근의 답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은 『창조』·『폐허』와 같은 동인지와 그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보였던 『조선문단』, 한마디로 말해 1920년대 전반기에 현저히 나타났던 문예지에 주목했다. 문학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학의 전문화·고도화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문예지의 공헌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同人雜誌란 것은 無名作家가 得名하기까지의 한 過度道程物”로 여겼다는 김동인의 고백처럼 문예지의 상대적인 한계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43)</sup>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동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개방적이었던 『조선문단』조차도 개벽사의 잡지들에 비하면 시장을 개척·확대하는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예지는 사회 전 계층이 아니라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바로 그 때문에 문학시장의 계층별 구조화에 있어서도 문예지보다는 개벽사의 공헌도가 비할 수 없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의할 사실은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연출하는 데 개벽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강력한 인쇄매체기구가 또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신문사였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문사는 가장 거대한 인쇄매체기구가자 문학시장의 큰손이었다. 신문사의 목표 또한 개벽사와 똑같이 사회 전 계층을 포괄·장악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문학시장의 계층적인 구조화와 관련해서는 개벽사와 신문사의 역할을 구별해야 한다. 개벽사의 미디어 전략이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1923년부터의 3~4년 동안 신문사들은 학예면을 원활히 운영할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신문시장의 주도권을 빠르게 차지해나갔던 『동아일보』만 하더라도 1923년 6월에 들어서야 학예면의 구상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다. 그 결과가 매주 일요일자 신문을 평소보다 증면 발행하여 그 추가 지면에 각종의 문학텍스트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연재소설 외의 문학장르들은 신문 지면에서 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채 신문 부록의 형태로만 취급되었다. 『동아일보』에서 학예면이 상설되었던 때는 『동아일보』가 신문들 간의 증면 경쟁에 따라 4면제에서 6면제로 발행되기 시작한 1925년 8월 11일부터였다. 이때 학예면은 3면에 정착했는데, 그것은 ‘文藝欄, 家庭婦人欄, 少年少女欄’이 결합된 형태였다. 그래서 동아일보사에는 한동안 학예면을 “家庭과 學藝”로 불렀다. 『동아일보』와 비슷한 시행착오 과정을 겪었던 『조선일보』의 학예면도 6면제가 시행된 지 반년 정도가 지난 1925년 5월 이후부터 『동아일보』의 것과 동일한 구성 방식을 취하며 3면에 정착했다. 하지만 『매일신보』의 학예면은 ‘婦人과 家庭, 新春文藝, 文藝와 書簡’ 등으로 불렸던 일요일자 신문의 부록 형태로 1927년까지 존속했다가 1930년 2월 11일에 『매일신보』가 증면되고 나서야 비로소 신문에 정착할 수 있었다.<sup>44)</sup>

43) 金東仁, 「『創造』回顧」, 『朝光』 32, 1938.6, 50면.

44) 유석환, 「식민지시기 문학시장의 변동 양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1): 매일신보사 편」(『대동문화연구』 9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식민지시기 문학시장의 변동 양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2): 동아일보사 편」(『대동문화연구』 9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식민지시기 문학시장 변동 양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3): 조선일보사 편」(『반교어문연구』 51, 반교어문학회, 2019)에서 해당 신문에 대한 부분 참조. 아울러 이혜령, 「1920년대 『동아일보』 학예면의

이처럼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한 무렵에 신문들의 학예면이 하나같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주목할 또 하나의 사실은 신문과 잡지가 문학을 계층화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신문이 지면을 늘려나감으로써 이질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매체에 집약하는, 마치 전체집합과 같은 인쇄매체라면, 잡지는 그 종수를 늘려나감으로써 그 이질적인 내용들을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곧 전체집합의 부분집합과 같은 인쇄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쇄매체의 속성 때문에 신문이 비록 이질적인 내용들을 일정한 섹션별로 배치한다고 해도 개별적인 성향이 더 강한 잡지가 신문에 비해 문학을 계층적으로 분할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여성과 아동, 문학이 혼재된 형태로 구성된 신문의 학예면과 개별 잡지들의 문예란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까닭에 적어도 1920년대 동안 개벽사와 신문들 사이에서는 문학을 계층화하는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격차에 대해 임화는 잡지와 신문의 시사성을 가지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인용문이 조금 길지만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제시한 임화의 문장을 읽어보자.

“雜誌는 新聞이 對象에 對하여 不過 數 時間 기껏해야 一日의 距離밖에 못 가지고 있는 대신 一個月이란 相距를 가지고 社會現象을 바라본다. 다시 말하면 新聞이 燈下不明格으로 社會現象과 지내치게 密着하여 잇기 때문에 채 分揀이 어려운 것을 雜誌는 明澄히 觀察할 特長을 享有하고 있다. 따라서 新聞이 社會現象을 選擇하는 範圍보다는 훨씬 좁은 限度에서 對象을 고르게 되고 그만큼 新聞보다는 더 選擇의 水準이 높아지고 嚴格해진다. …… 그럼으로 廣義의 ‘씨-네리즘’이 一種의 批評意識을 內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 不拘하고 新聞의 技能은 主로 報道에 잇고 雜誌의 技能은 主로 評價에 잇다 할 수 있다. …… 新聞의 時事性은 主로 報道의 時事性에 잇다면 雜誌의 時事性은 實로 評價의 時事性에 잇는 것이다. 評價의 時事性, 박귀 말하면 時事的 評價란 곳 批評에 不外한다.”<sup>45)</sup>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대동문화연구』 5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와 박현수·홍현영, 「1920년대 초기 『조선일보』 「문예란」 연구: 발굴과 위상의 구명」(『민족문화사연구』 57,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5)은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창간 직후 『조선일보』의 문학 배치 방식에 대해 유석환의 글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45) 林和, 「雜誌文化論」, 『批判』 45, 1938.05, 111~112면(말줄임표는 인용자의 것).

임화는 일간과 월간이라는 발행주기의 차이 때문에 신문과 잡지 사이에는 대상화의 수준 차이가 필연적이라고 판단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발행주기가 긴 잡지의 시사성이 신문의 것에 비해 대상화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이 임화의 판단이었다. 신문과 잡지의 시사성과 그 수준차에 대한 임화의 판단을 신문과 잡지가 추구했던 문학의 계층적인 구조화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쇄매체의 발행주기라는 시간차가 문학의 계층화 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만큼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더구나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신문들의 학예면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했던 데 반해 개벽사 잡지들의 문예란은 활성화되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문학시장의 계층적 구조화를 신문사보다는 개벽사가 더 효과적으로 자극·유도·확립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V. 맺음말

이 글의 목표는 개벽사의 역사적·문학사적 의미를 문학시장이라는 사회적 공간과 연관 지어 사유해보려는 데 있었다. 개벽사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 전 계층을 포괄하는 데 성공했던 잡지사였다. 그동안 신문사만이 가능했던 그 영역에 진입하여 자신의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 개벽사는 신문과 잡지라는 매체의 속성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신문의 통합성과 잡지의 분할성이 그것이었다. 개벽사는 연령·성별·학력·직업 등을 기준 삼아 사회 전 계층을 분할한 후 그에 적합한 잡지들을 고안했다. 『개벽』과 『부인』·『신여성』, 『어린이』, 『별건곤』, 『학생』 등은 그 결과물이었다. 개벽사의 그와 같은 미디어 전략에 의해 지식과 문학이 계층별로 구분될 수 있고, 혹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었다. 물론 신문사 역시도 개벽사처럼 지식·문학의 계층화를 추구했지만, 하나의 매체를 통해 그것을 구현하는 신문보다는 잡지의 경우가 더 효과적이었다.

주목할 사안은 개벽사가 시도했던 문학의 계층별 분할의 역사적 의미다. 1910년대의 주요 잡지사였던 신문관이나 新文社가 증언하듯이 그런 시도는 개벽사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벽사가 등장할 때까지 개벽사만큼 그 작업을 잘해낸 잡지사도, 또 다른 형태의 인쇄매체기구도 없었다. 더구나 개벽사가 그 작업을 진행했던 시기는

『창조』·『백조』 등의 동인지가 대변하듯이 이른바 근대문학의 본격적인 출현기였다. 문학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여러 잡지에 채워넣기에는 문학 자원이 여유롭지 못했다는 당시의 문학사적 상황도 주의해야겠지만, 그보다는 개벽사의 선구적인 측면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개벽사는 근대문학의 계층별 분할의 첫 모델을 보여준 잡지사였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관념 속에 자리잡은 문학의 계층적 구조의 기원은 개벽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개벽사의 몰락 이후 개벽사가 추구했던 미디어 전략의 실질적인 첫 상속자는 신문사였다. 1930년대의 주요 잡지사였던 삼천리사와 비관사 등도 개벽사와 같은 미디어 전략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외의 다양한 잡지사들이 기회가 날 때마다 도전했지만 개벽사만큼 그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던 잡지사는 적어도 식민지시기 동안에는 없었다. 신문사의 경우에도 잡지시장 진입의 첫발을 내디딘 건 동아일보사였지만 개벽사와 같은 규모의 다종잡지체제 구축에 성공한 건 조선일보사 정도였다. 두말할 나위 없이 개벽사 이후 수없이 전개된 문학의 계층적 분할 작업에는 언제나 개벽사의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문학의 계층적 분할이 시기마다, 인쇄매체나 인쇄매체기 구마다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학사의 흐름을 특정한 작가나 작품, 혹은 문학의 유파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이해방식과는 관점과 방법을 달리하는 시도다. 또한 특정한 인쇄매체의 내용을 개별적·미시적으로 검토하는 기존의 주류적인 인쇄매체 연구와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글에서 개략적으로 검토했던 것과 같이 각각의 인쇄매체는 연령·성별·학력·직업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기준에 따라 문학에 대한 나름의 견해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문학에 대한 인쇄매체들의 서로 다른 이해방식의 충돌이 문학의 사회적 정체성과 그 역사적 맥락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인쇄매체를 분석단위로 삼아 문학에 대한 집합적 관념들의 경쟁·협력·갈등·연대·투쟁 등과 같은 다양한 관계에 주목하는 거시적인 관점 없이는 문학의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할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 거시적인 관점의 필요성과 유효함을 추구한 이 글에서의 시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문학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새롭고 깊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 참고문헌

- 『開闢』, 『婦人』, 『新女性』, 『어린이』, 『別乾坤』, 『學生』, 『天道教青年會會報』, 식민지시기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 등
- 이경돈, 『문학 이후』, 소명출판, 2009
-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편, 『天道教青年會八十年史』, 글나무, 2000
-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 深井智朗, 홍이표 역, 『사상으로서의 편집자』, 도서출판 한울, 2015
- Henri Lefebvr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 Peter L. Berger · Thomas Luckmann, 하홍규 역, 『실재의 사회적 구성: 지식사회학 논고』, 문학과지성사, 2013
- 박현호, 「문화정치가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검열연구회 편,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 박현수·홍현영, 「1920년대 초기 『조선일보』 「문예란」 연구: 발굴과 위상의 구명」, 『민족문화사연구』 57,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 유석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잡지」,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_\_\_\_\_, 「식민지시기 근대소설의 발흥과 천도교 매체의 역할」,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 \_\_\_\_\_,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근대 초기 잡지의 편집양식과 근대적인 문학 개념」, 『대동문화연구』 8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 \_\_\_\_\_,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
- \_\_\_\_\_, 「식민지시기 문학시장의 변동 양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1): 매일신보사 편」, 『대동문화연구』 9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 \_\_\_\_\_, 「식민지시기 문학시장의 변동 양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2): 동아일보사 편」, 『대동문화연구』 9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 \_\_\_\_\_, 「식민지시대 문학시장 변동 양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3): 조선일보사 편」, 『반교어문연구』 51, 2019
- 이경현, 「1910년대 新文館의 문학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 이혜령, 「1920년대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 『대동문화연구』 5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 정용서,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 \_\_\_\_\_,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 『역사와 실학』 57, 역사실학회, 2015
-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판: 『소년』·『청춘』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근대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 성균관대 출판부, 2006
- \_\_\_\_\_,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7

## Media Strategy of the Gaebyeoksa(開闢社) and Structural Change of literary marketplace in the 1920s

Yu, Seok-hwan

This article is based on a review of the historical meanings of the Gaebyeoksa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space called the literary marketplace. The Gaebyeoksa was the first magazine company in Korean history that succeeded in covering all social classes. The results were *Gaebyeok*(開闢), *Buin*(婦人) · *Sinyeoseong*(新女性), *Eorini*(어린  
이), *Byeolgungon*(別乾坤), and *Haksaeng*(學生). The idea that knowledge and literature could or should be classified by class according to the media strategy of the Gaebyeoksa was formed throughout society. The Gaebyeoksa was a magazine company that showed the first model of hierarchical division of modern literature. The academic contribution of this article can also be found in that it has attempted a new understanding that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literary understanding centered on a specific author, work, or school of literature.

Key Words : Gaebyeoksa, literary marketplace, *Gaebyeok*(開闢), *Sinyeoseong*(新女性),  
*Eorini*(어린이), *Haksaeng*(學生), *Byeolgungon*(別乾坤)